

#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 (차재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1
----------	-------

발의연월일 : 2016. 5. .

발 의 자 : 차재홍,한일용,이동주,김영미,  
서종수,김윤정,문정애,신종갑,  
허정행,김효식,유호렬,전승학,  
백남환,이봉수,이학래,이필래,  
송병길,강희향의원 (18명)

##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경의선 신촌 ~ 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가. 경의선숲길 이용자와 홍제천을 통해 한강으로 나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성산천 가도교 공사가 하천 횡단 철도교량의 침수예방 및 노후교량에 대한 철도운영 안전성 확보의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있음.
- 나. 성산천 가도교는 1936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수십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 데크 공사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과 연남동과 가좌역을 연결해 경의선숲길 및 홍제천을 통해 한강을 쉽게 진입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역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 다. 철도시설개량사업을 다른 공법으로 추진하여 중단된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재추진하여 줄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3. 이송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

서울시에서 조성한 경의선숲길 공원화 사업 중 연남동 구간과 마포구에서 조성중인 선형의 숲과의 연결 구간이 홍제천으로 단절되어, 경의선숲길 이용자와 홍제천을 통해 한강으로 나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성산천 가도교 공사가 하천횡단 철도 교량의 침수예방 및 노후교량에 대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의 이유로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해 서울시가 주관한 “2015년 서울시 10대 뉴스”에는 폐철길을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시킨 경의선 숲길 조성사업이 2위에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16년 6월에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오랜 세월 기차가 다녔던 철길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문화 공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게 되어 풍부한 녹지공간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마포는 최고의 주거 여건을 갖춘 살기좋은 녹색환경 도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숲길 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곳곳이 단절되어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사업비 5억 5천만원의 예산 및 인력 낭비는 물론, 경의선숲길 공원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이용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성산천 가도교는 1936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수십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과 연남동과 가좌역을 연결해 경의선숲길 및 홍제천을 통해 한강을 쉽게 진입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역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은 2014년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호협의로 2016년 5월초 준공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40만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개량사업을 다른 공법으로 추진하여 중단된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재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는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 연결데크 공사를 즉각 추진하라.
1.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는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 연결데크 공사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라.

2016. 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